佛子 CEO Interview

한봉희 우주물산 대표

“사람의 마음에 ‘향기’를 남깁니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시상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과 상을 수상한 한봉희 대표. 2023년과 2024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을 받은바 있다.





2026년 1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남해 보리암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진정한 나눔은 사람의 가슴에 ‘향기’로 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남해의 바다는 붉은 해를 품어내며 장엄한 빛을 뿜어냈다. 지난 1월 3일, 남해 보리암과 여수 향일암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순례길. 86명의 불자가 묵묵히 합장하며 오르는 그 행렬의 맨 앞에, 혹은 가장 뒤에서 도반들을 살피는 이가 있었다. 바로 봉제업체 ‘우주물산’을 이끄는 한봉희 대표다.

그에게 기업 경영과 불교적 수행은 두 개의 다른 트랙이 아니다.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그 이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장사가 되기도 하고 보살행이 되기도 합니다.” 한 대표의 첫마디에는 15년 넘게 이어온 뚝심 있는 신념이 묻어났다.

단순한 기부자가 아닌, ‘함께 걷고 땀 흘리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한봉희 대표. 새해 벽두, 여수 흥국사의 고즈넉한 처마 아래서 그를 만나 ‘불자 CEO’로서 걷는 자비와 나눔의 길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의 약속, 길 위에서 새해를 열다

한봉희 대표의 새해는 언제나 길 위에서 시작된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1월 3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한마음 전국사찰 성지순례단’의 일정은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그리고 흥국사로 이어졌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탄 86명의 순례단은 한 대표에게 가족이자 도반이다.

“새해 첫 순례는 저에게 있어 ‘영점 조절’과도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며 알게 모르게 쌓였던 욕심이나 집착, 번뇌들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는 시간이지요. 보리암에서 남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을 보는 경영을 하자’고요.”

순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움츠러들었던 신심이 다시 기지개를 켜듯, 참가자들은 가파른 향일암 계단을 오르며 거친 숨소리 대신 “관세음보살” 정근을 토해냈다. 한 대표는 “힘들게 올라가서 마주하는 법당은 그 자체로 환희심”이라며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절을 하는 이 공동체의 온기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도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동행’이 만든 기적, 한마음 순례단

‘한마음 전국사찰 성지순례단’의 역사는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인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버스 시동이 걸렸다. 놀라운 점은 별다른 홍보나 강제성 없이도 매회 80~90명의 인원이 꽉꽉 들어찬다는 사실이다.

한 대표는 순례 자체가 가장 강력한 포교라고 믿는다. 백 마디 말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보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등산 삼아 따라왔다가, 이제는 누구보다 신심 깊은 불자가 된 분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국경과 종교를 넘는 ‘무주상보시’

한봉희 대표의 나눔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더 춥고 낮은 곳, 티베트로 향해 있다. 약 5년 전부터 그는 매년 세 차례씩 티베트 지역에 의류와 양말 등을 보낸다. 그 양이 매번 1톤 트럭 분량에 달한다.

“제가 섬유, 봉제업(우주물산)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티베트의 고산지대는 춥습니다. 그곳의 스

2010년부터 순례단 구성
전국 순례하며 불심 다져

‘우주물산’ 통한 사회공헌
장애인 고용, 나눔 실천해
티베트 의류 지원 등 회향

님들과 아이들이 제가 만든 양말을 신고 추위를 견딘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장에서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의 자비에는 경계가 없다. 불교 국가인 티베트뿐만 아니라, 국내 타 종교 단체에도 세 차례나 물품 나눔을 진행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쌀 나눔도 5~6차례 이어왔다. 독실한 불자이면서 타 종교에 기부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배고픔과 추위에 종교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타 종교 시설이라도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돕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우주’

한 대표가 2008년 설립한 ‘우주물산’은 단순한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산성 저하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대표의 계산법은 달랐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한 인간에게 ‘존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업가로서 느끼는 성취감은 매출 그래프가 올라갈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장애인 직원들이 꼼꼼하게 물건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린다고 했다. 같은 물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듯, 조금 느린 손길도 기다려주고 격려하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익을 ‘회향’하는 선순환의 경영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땀과 사회의 도움,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렇기에 그 결실을 다시 불법(佛法)을 전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순환’입니다. 순례단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면 벌써 그만두었겠지요. 오히려 돈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기업의 곳간은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역설을 믿는다. 나눔을 실천할수록 회사는 더 단단해졌고, 직원들의 결속력도 강해졌다. 그에게 경영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공급하는 통로다.

멈추지 않는 수행, “중요한 것은 지속”

인터뷰 말미, 그녀는 거창한 청사진 대신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특별히 더 큰일을 벌이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도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재봉틀이 돌아가는 한, 티베트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말을 보낼 겁니다.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꾸준함’이듯, 나눔과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묵묵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새해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의 원력(願力)은 소박하지만 묵직했다.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남지만, 나눔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그의 말처럼, 한봉희 대표는 오늘도 현장을 오가며 자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자비로 교복을 만드는 우주물산

한땀 정성에 자비를 담아,
아이들의 꿈을 만듭니다.

우주물산
교복 봉제 전문기업

우주물산은 (주)형지엘리트 교복과 최고급 교복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주물산은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여 (주)형지엘리트 교복이 최고의 교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1 3층 우주물산 문의 : 010-8651-0876